이별이 많았던 하노이에서

찌아오팀의

12월보고서

Contents

NO 1.
팀원분석표

NO 2.
프로그램

NO 3.
문화탐방

NO 4.
개인에세이

번클•봉클

아띠클럽

중간보고

교육 활동

4개월 간의 밀착관찰을 기반한

팀원 분석표

허재복 Hu' u Phuc

베트남과의 궁합 ★★★★★

드립력 ★☆☆☆☆

스타병 ★★★★☆

전투력 ★★★★★

4개월 간의 밀착관찰을 기반한

팀원 분석표

이사라 Đoan Trang

인성	★★★★★
베트남과의 궁합	★★☆☆☆
깔끔함	★★★★☆
탄소배출량 *깔끔함과 비례	★★★★★

4개월 간의 밀착관찰을 기반한

팀원 분석표

이성연 Thien Thanh

인기 *베트남에서만 유효	★★★★★
드립력	★★★★★
자기PR	★★★★★
전투력	★★★★★

4개월 간의 밀착관찰을 기반한

팀원 분석표

한중교 Hu' u Nhan

감수성 ★★★★★

드립력 ★★★★☆

늦바람 ★★★☆☆
*아이스아메리카노

전투력 ★☆☆☆☆

Contents

NO 1.
팀원분석표

NO 3.
문화탐방

NO 2.
프로그램

NO 4.
개인에세이

번클•봉클

중간보고

아띠클럽

교육 활동

번클 · 봉클

라온아띠 최장기 활동!
라온아띠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준 번클 · 봉클

번역클럽(중교, 성연)
매주 목요일 5:30 – 8:30

봉사클럽(사라, 재복)
매주 화요일 5:30 – 8:30

번역클럽 종강식

재복아
턱받이 해줄까..?

종강식 시작 전
만찬!!

번역클럽 종강식

종강식 MC
응옥 & 냔

커플로 착각할뻔♥

번역클럽 종강식

축하 공연 해주는
아띠들

중교&재복
특별무대

번역클럽 종강식

번클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번클친구들은 지금
활동영상에
집중 中

Cam on 번역클럽

그동안의 추억
잊지 않을게요

Hen gap lai

피드백

- 졸업여행을 같이해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 베트남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다른 활동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어 고마웠다.

봉사클럽

꾸옥아이초등학교 마지막 봉사

마지막 봉사는 모든 조가 게임을!!

봉사클럽

꾸옥아이초등학교 마지막 봉사

3번 뿐이었지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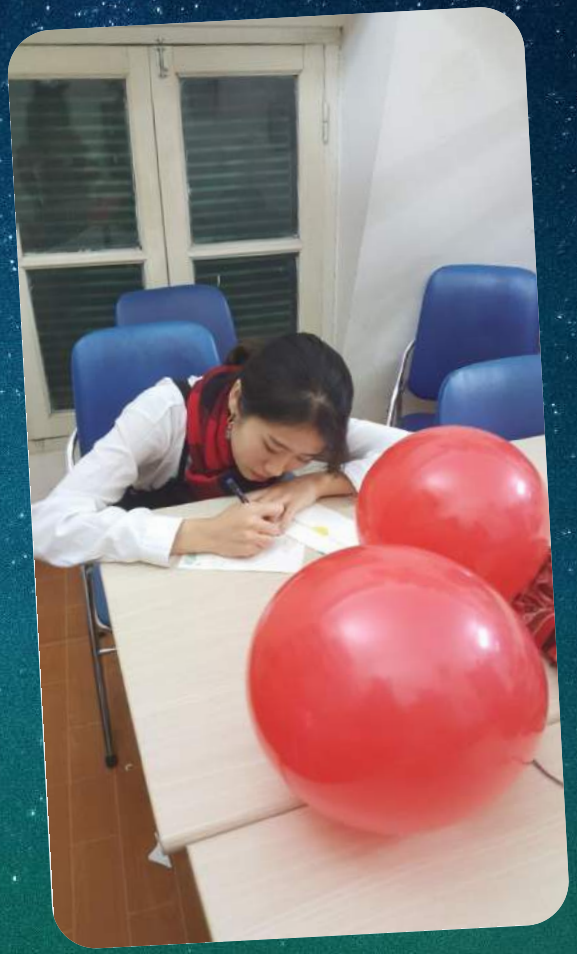
봉사클럽 종강식

봉클 막내들!

봉사클럽 종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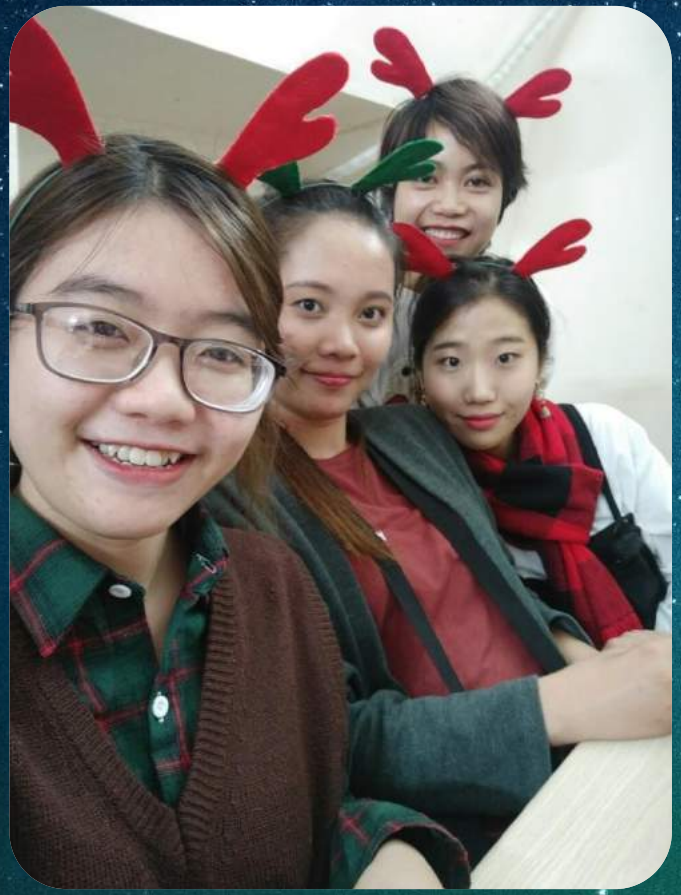
Heart shaker를 추는
봉클반장과 막내재복

봉사클럽 종강식



뭔가
열중하는
사라씨

봉사클럽 종강식



봉사클럽 종강식

봉사클럽 종강식

선물교환식의 선물과
봉클이 준비해준 선물!

Cam on 봉사클럽

피드백

- 봉클친구들 덕분에 베트남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 봉클친구들이 베트남어를 많이 가르쳐주어서 베트남어가 빨리 늘 수 있었다.
- 봉클친구들로 인해 꾸옥아이초등학교아이들과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아띠클럽

10주 동안 매 주 만났던
응웬짜이대•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도
이젠 안녕~

경제대 Farewell Party는 커밍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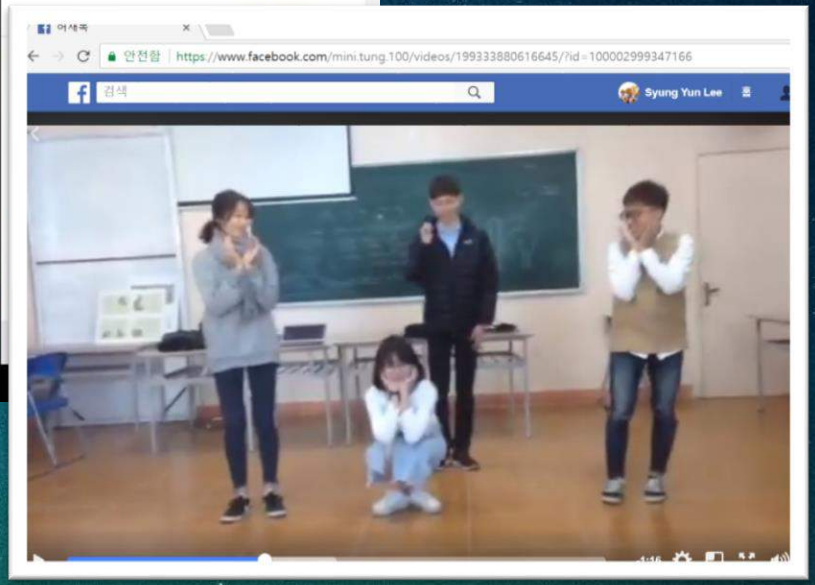
Nguyen Trai University

아띠클럽

응웬짜이대 친구들과 요리하고.

Nguyen Trai University

아띠클럽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재복이는
페북스타가 되었습니다..★

Nguyen Trai University

아띠클럽

그리고 찾아온
응웬짜이대 친구들과의
마지막 날!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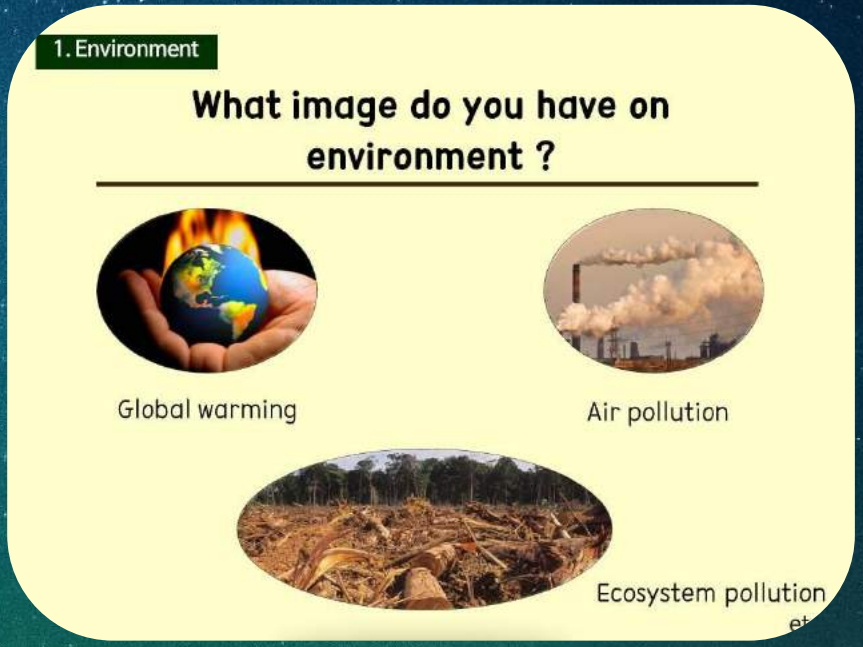
이별의 노래를
불러준 꿍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활동#1 - 350ppm

4조가 준비한
350ppm 활동!

나의 탄소배출량
계산하기, 토론,
그리고
게임 등을 했어요.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활동#2 - Social Enterprise

먼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사는 하노이에는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
논의 및 기획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활동#2 -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Proposal 발표

기대효과, 디자인, 지역 등
세세한 부분까지 발표한
친구들!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활동#2 - Social Enterprise

〈Fresh〉

홈스테이 형식의 관광을
제공하는 관광기업!
착한 관광과 해당 지역에
발전을 기대한다.

〈Easy Trip〉

관광객과 대학생을
연결시켜주어
색다른 관광을
주도한다!
착한 관광과
청년들의 삶 개선

〈MCPT Co.〉

베트남에서
핫!이슈인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유기농채소
유통기업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활동#3 - 마침표

롤링페이퍼 쓰기 &
영상 감상

수료증 전달식
보고싶을꺼야...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보너스 - 크리스마스 파티

메뉴는 무한리필
샤브샤브

선물 추첨도 했어요!
과연 우리는 뭘 받았을까요?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아띠클럽 보너스 - 크리스마스 파티

자기가 뽑은 선물들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

하지만 Thanh단원은
500원짜리 과자를 받았답니다.
(누구야..😠)

피드백

- 처음 우리가 기획한 활동이라 애착이 많이 갔지만 힘도 들었다.
- 베트남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알 수 있었다.
- 베트남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교육봉사활동

일시 - 12/11 & 12/14

장소 - 툭응히엠 초등학교

주제 – 한국문화,성평등
경제교육

교육 봉사 활동

수업 전 선생님에게
노하우도 받고!!

지금은
아띠 소개 중

교육 봉사 활동

저요! 저요!

국기를
색칠해 봐요

교육 봉사 활동

귀요미 커플♥

차세대
스파이더맨

피드백

- 통역이 매번 바뀌어 힘들다.
- 기대보다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를 열심히 해줘서 힘이 난다.
- 드디어 했다. 교육봉사.

중간보고

우리들의 지원군

양동화 간사님,

박상희 간사님 coming!!

p.s 예뻐져서 돌아갈게요..

중간보고
찌아오들의 중간평가

찌아오팀의 100% 완성도인

PPT와 영상으로 중간보고회 시작 ☺

중간보고

찌아오들의 사이트 방문

국민경제대학교

응웬짜이대학교

중간보고

찌아오들의 사이트 방문

혼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해 NO!!

김밥 만들기 대회 심사 중이십니다^^

피드백

- 처음으로 우리의 불편함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 간사님과의 면담이 좋았다.
- 중간보고는 꼭 필요하다.

Contents

NO 1.
팀원분석표

NO 2.
프로그램

NO 3.
문화탐방

NO 4.
개인에세이

번클•봉클

아띠클럽

중간보고

교육 활동

번클 졸업여행

날이 좋아서
추억이 많아서
같이 있어서
좋았던 졸업여행!

장소 – 다낭, 호이안
일정 – 3박 4일
(12.21 ~ 12.24)

1일차

다낭으로 출발!!

1일차

영주조

지용조

다같이
한 컷!

2일차

바나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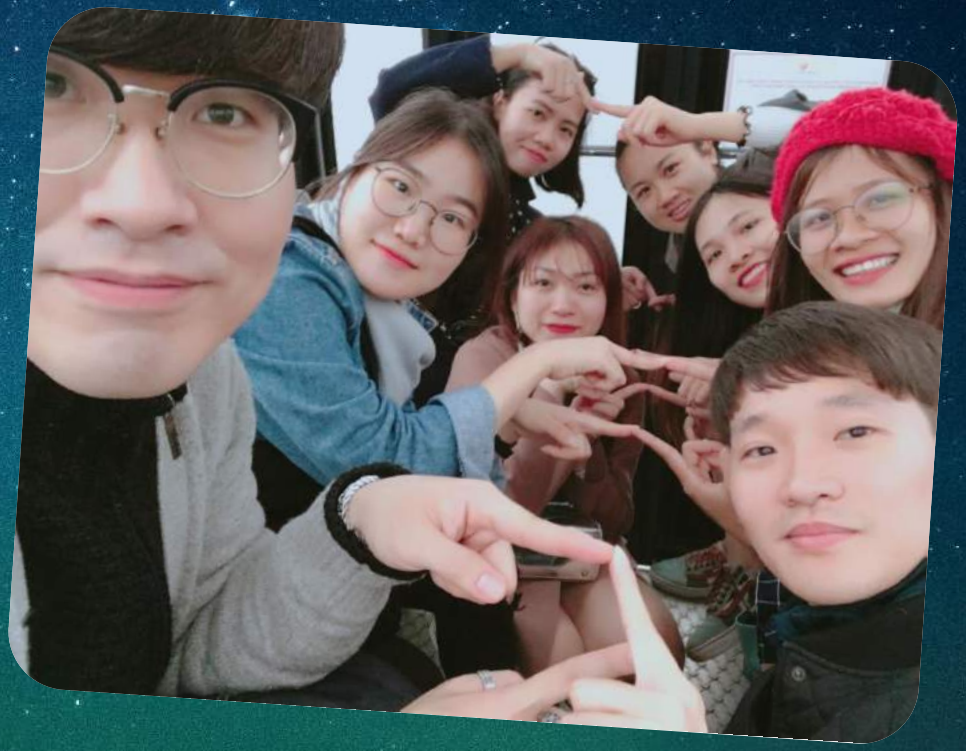
2일차

바나힐에 온 영주조

2일차

2일차

바나힐에 온 지용조



2일차

2일차

놀이공원에 온 지용조

2일차

놀이공원에 온 영주조

2일차

회전목마를 타는 번클과 아띠들!

성연이의 모자를 날라가게 했던
범버카(feat.재복)

2일차

그리고 그날 밤
시작된 우노

3일차

첫 번째로 간 린응사

3일차

두 번째는 닭(Ga) 성당

3일차

세 번째는 호이안!!
사진도 많이 찍고!

3일차

쎈나 보이는
중고쓰의 걸음걸이

3일차

밤거리가 예쁜
호이안

통통 돛단배를 탄
지용조

3일차

나의 인생그래프
그려보기!!

3일차

다낭에서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우노!

3일차

다낭을 떠나기
직전까지 우노!

하노이 도착!
졸업여행 끄읕…ㅜㅜ

봉클 졸업여행

캠핑이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끼리 잘 놀아서
좋았던 졸업여행

장소 – 하노이 근처
일정 – 1박 2일
(12.30 ~ 12.31)

봉사클럽 졸업여행

캠핑 하는 곳 도착!

봉사클럽 졸업여행

21살 막내들! 이제 22...

우리들의 chi 프엉

봉사클럽 졸업여행

바비큐 파티!!

봉사클럽 졸업여행

점심 먹고!!
사라와 재복이
준비한
게임!!

봉사클럽 졸업여행

집으로 떠나기 전
사진 마니마니 찍는
봉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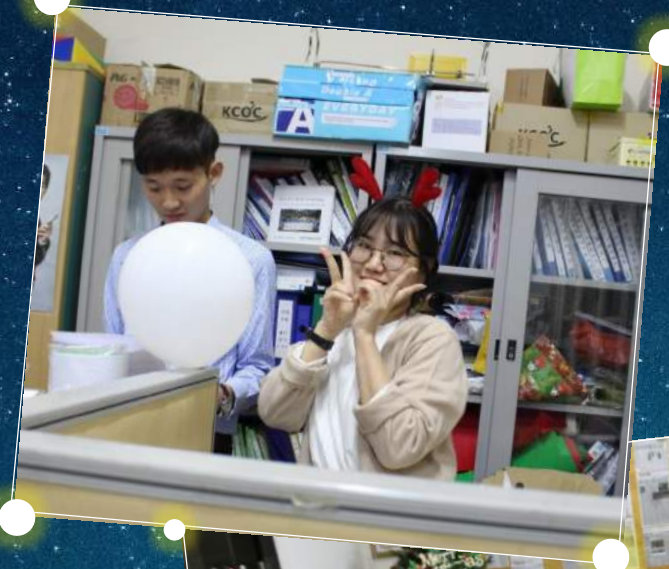
봉사클럽 졸업여행

크리스마스_파티

눈은 안 내리지만,
베트남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 열심히 파티를 준비하는 사라

크리스마스 파티



선물 교환식

크리스마스 만찬

홈스테이

"하노이" 도시를 벗어나
"박닌" 마을에서
2박 3일 지내기

p.s 밤하늘의 별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었다.

홈스테이
"박닌" 마을에서의 2박 3일

박닌 도착!!

끕끕한 날씨가 3일 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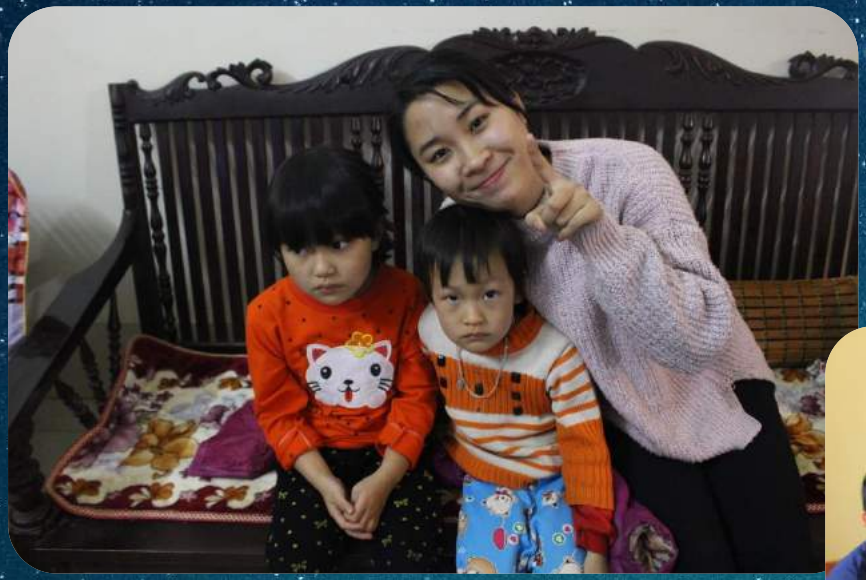
지속될 줄 몰랐다..

마을 안에 있는 성당!

저녁이 더

※ 예쁨 주의

홈스테이
"박닌" 마을에서의 2박 3일



간사님의 외가 댁에서

홈스테이 스똬트!!

프엉간사님의 가족들과 점심식사😁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야무지게 채소 손질하는 사라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저녁이 되면 또 밥을 하고 있는 찌아오들...

그리고 반복되는 삼일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한국음식!!

정성 가득 손맛 가득 ❤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어디든 청소합니다.

언제든 달려갑니다.

연락주세요. -찌아오 일동-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성당에서

단체사진 📷

홈스테이
삼시세끼 박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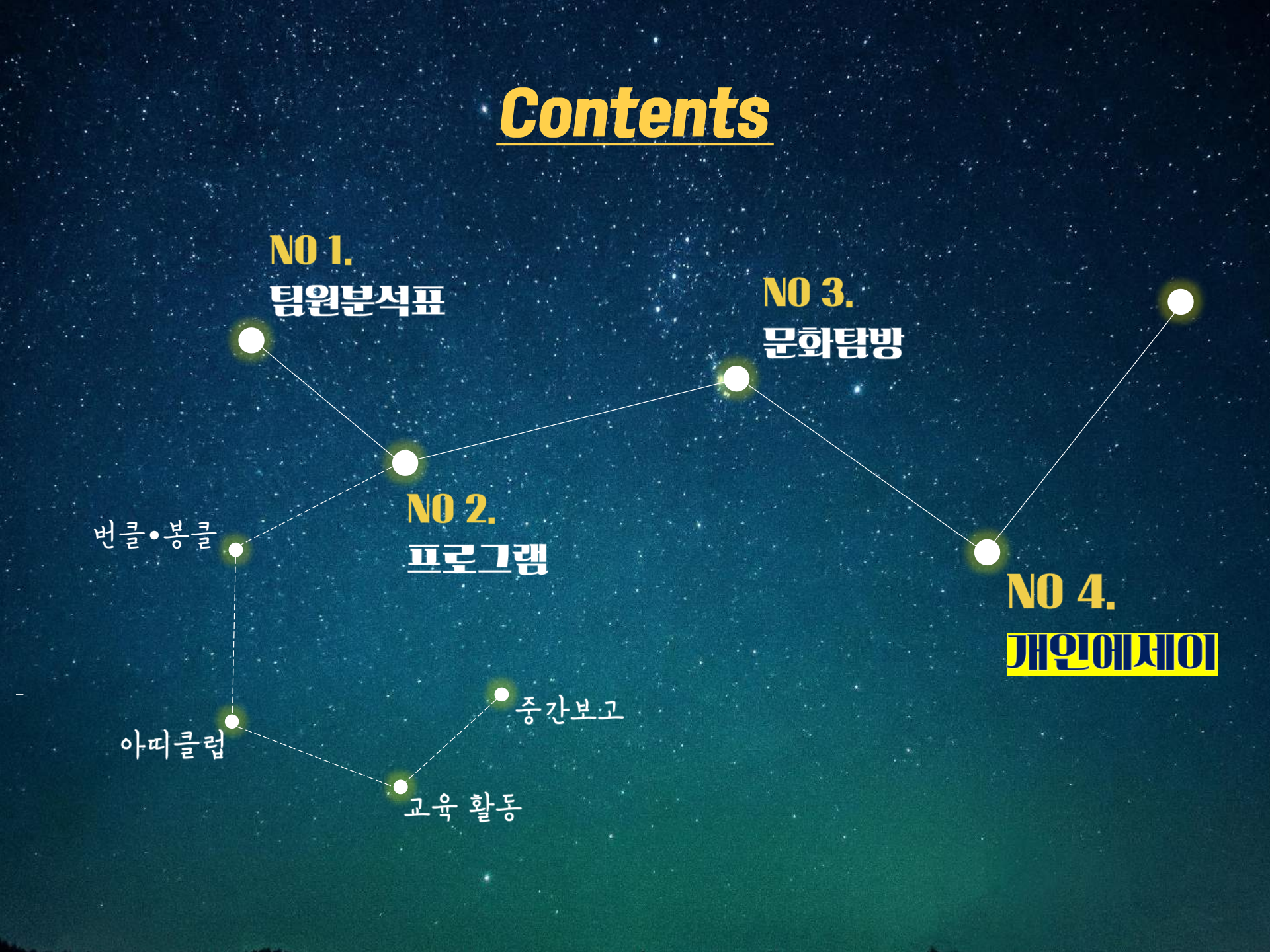
할아버지와 마지막 추억을 담은 사진

감사했습니다❤

간사님의 아버님과 마지막 추억을 담은 사진

정이 많았던 박닌 마을에서의 생활 끝!!

Contents



개인에세이 by 중교

어느새 라온아띠 활동이 끝나간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나는 지금 싱숭생숭하다. 라온아띠가 끝나면 굉장히 후련할 것 같았지만 에세이를 쓰고 있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은 아쉬움에 자꾸 4개월간의 활동사진을 뒤적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12월 보고서를 쓸 때가 다가와 12월을 복기 해보았다. 12월엔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11월 개인에세이에도 썼듯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있던 나는 솔직히 중간보고회가 귀찮았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했다. 하지만 막상 간사님들을 공항에서 뵈니 정말로 우리 편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귀찮다고 생각했던 중간보고회가 나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양간사님과 1대1 면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대화 속에서 정말로 응원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양간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나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이 다시 힘을 얻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12월은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에서의 첫 활동이었던 번역클럽, 봉사클럽 친구들과 작별했고, 우리가 기획한 아띠클럽 친구들과도 헤어졌다. 사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헤어짐에 대해 굉장히 무덤덤했다. 처음에만 슬프고 아플 뿐 나중에는 아문다는 생각으로 이별을 대해왔다. 그래서 번역클럽과 아띠클럽의 종강식을 한꺼번에 했던 금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솔직히 슬픈 감정이 많이 들지 않았고 실감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에게 받은 예상치 못했던 이별 선물과 그 안에 쓰여 있는 코멘트에 담긴 그들의 진심, 그리고 번역클럽 친구들과 종강식 이후 카페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 동안의 활동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들과 함께 했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그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많은 미안함과 후회가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야 그 순간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듯 나 또한 그 후회 어린 진실을 다시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이 지난 뒤 그들과 이제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에 그들과의 이별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미안함과 후회를 보답하는 것은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치열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 그때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만나기 힘들 수 도 있지만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쓰다 보니 최종보고회의 개인 소감처럼 되어 버렸지만.. 그들과 이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러한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이고 나의 진심이라 생각하기에 다시 12월 개인에세이를 쓰라고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가 베트남에서 출국 할 때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나쁘지만 않게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에세이 by 성연

★이별이 많았던 하노이에서 찌아오팀 12월 보고서

우리 팀 보고서의 제목이다. 눈치챈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제와 보고서 디자인은 꽤 연관성이 있다. (ㅎ_ㅎ) 그만큼 12월에는 이별이 많았다. 보고서에 나왔던 번역클럽, 아띠클럽 친구들 이외에도 프엉 간사님과 홍아잉 간사님과도 이별을 해야 했다. 이별은 슬프고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임을 배울 수 있었다.

번역클럽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같이 가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서로서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응웬짜이대 아띠클럽 친구들은 비록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고뭉치 동생 같은 느낌이 든다.

경제대 아띠클럽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서로의 길을 응원해주었다. 또 베트남 라온아띠 생활에서 내가 남긴 것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프엉 간사님과 홍아잉 간사님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우리 팀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공감했던 말,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12월이었다.

(© 감성치와와 한중교)

개인에세이 by 성연

★경제대 아띠들의 롤링페이퍼

나는 롤링페이퍼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12월 달 회의 때마다 나는 자주 롤링페이퍼를 어필했었다. 하지만 롤링페이퍼를 쓸 수 있었던 곳은 경제대 아띠클럽 마지막 주차 때 뿐이었다. 경제대 아이들과 많이 친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제대로 출발했다. 그런데 내 롤링페이퍼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 사실 좀 실망했다. 대충 쓴 티가 조금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써 내 마음을 다독이며 위안했었다. 이 후에 스케줄이 있어 급히 가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우리를 붙잡으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을 하나씩 선물해주었다. 그 책 첫 페이지에는 긴 편지들이 써있었다. 경제대 친구들은 두 번이나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편지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가 실망했던 것이 미안했다. 역시 남는 건 사람이다.

웃겼던 문구: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lovely, a little bit short but it's okay :)"

개인에세이 by 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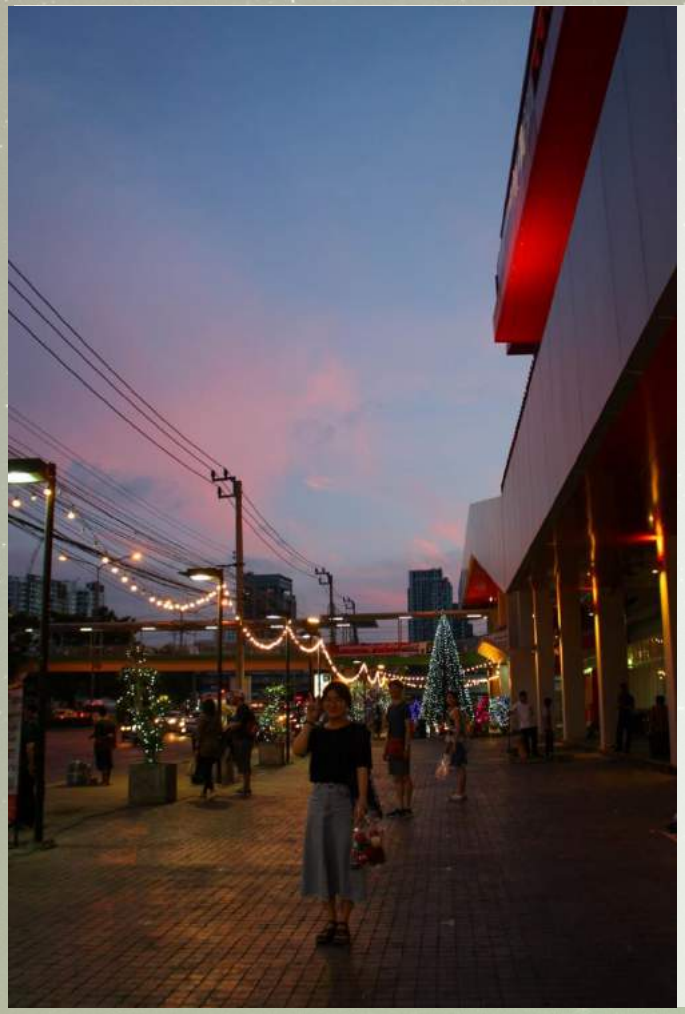
★중간보고회

너무나 반가운 양&박 간사님께서 하노이에 오셨다. 카페를 하루에 몇 번씩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무엇보다도 출근을 늦게 하고 퇴근을 빨리 했다. 너무 좋았따.

그리고 간사님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나서 팀원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간사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은 나의 성격이라고 말해주셨다. 이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됐고, 덕분에 나 자신을 더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간보고 때 가장 큰 변화는 불편함을 꺼낸 것이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센터는 매우 한국적인 기관이어서 우린 한번도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동안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간사님과 팀원들과의 토론 끝에 센터 측에 우리의 불편함을 전달하게 되었다. 사실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후폭풍은 존재했다. 중간 보고 이 후에도 한 번 더 불편함을 꺼낼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이 번에도 후폭풍은 존재했다. 하지만 두 번 다 불편함을 얘기한 것이 후회되진 않았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속 시원했다.

개인에세이 by 성연



★12월의 Thien Thanh

사실 이 번 개인에세이는 쓰기가 유난히 힘들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해보았을 때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12월의 나는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다. 비자트립, 중간보고, 졸업여행 등 굵직한 일정이 많아서였을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지쳐서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2월의 난 그랬다. 그래도 팀원들을 의지하며 12월을 무사히 함께 마무리한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1월만큼은 생각하며 살려고 한다. 중간보고 때 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남은 시간을 팀원들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려고 한다. 요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지만 ㅎ

개인에세이 by 사라

#불편함

양간사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변화된 것은 불편함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변화의 시작은 양간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팀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꺼내보았다. 우리들이 갖고 있던 불편함을 전달함으로써 그 동안 찝찝했던 마음들이 시원해졌다. 그 이후에 뒷감당을 해야 될 부분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일로 통해 유익한 경험을 했고, 불편함을 꺼내보는 훈련이 되었다. 표현이 서툰 만큼 내가 겪게 되는 사소한 감정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꺼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별

봉사클럽에서 마지막 세 차례 봉사활동을 하러 꾸옥와이 초등학교에 갔다. 만나자마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나의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마웠다. 활동이 다 끝나갈 무렵 봉클 한 친구가 아이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

개인에세이 by 사라

라고 말했더니 여학생들 거의 반이 울었다. 이른 나이에 익숙하지 않는 이별을 겪어야 했고, 그 이별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겨준 거 같아서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단지 내가 좋아서, 내 감정이 앞서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의 꼬리를 물다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했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었다. 진짜로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선을 긋고 행동했다면 서로가 '이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에겐 또 다른 경험을 한 거고 나 또한 이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이별에 대해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고, 마지막이라는 것에 아무런 감정 없이 보냈었다. 활동을 통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꼭 긴 시간을 걸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대로 작별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 외에도 12월에 이별을 하는 날이 많았다. 아띠클럽에서 그 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동시에 기억 속에서 응웬짜이대 아띠클럽에서 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유난히 응웬짜이대에서 한 아띠클럽은 에너지 소모가 많았음에도 몇 몇 친구들 덕분에 즐거웠었다. 그 친구들마저 없었다면 우린 이미 반 포기에서 또 절반을 포기했을 것이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고마웠고, 우리를 항상 즐겁게 맞이해주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웃는 얼굴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응웬짜이대 보다 국민경제대 친구들과 이별하는 게 너무 슬펐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친구들이었고, 아띠클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관심 있게 참여한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쌓은 추억들이 너무 많았다.

개인에세이 by 사라

아띠클럽을 너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해줘서 그들에게 고마웠고, 서로가 진지하게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토론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 생각의 깊이를 들을 수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배움이 되었다. 두 학교를 한 번에 아띠클럽 종강을 해서 그런지 마음이 울적한 하루였다. 작별을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하려니 마음이 무거웠다. 모든 팀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라온아띠 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사람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활동이 봉사클럽이었다. 9월부터 시작해 4달 동안 봉사클럽 친구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봉사활동을 비롯해 봉사클럽 시간 때 강의들은 내용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 각자의 고민거리도 같이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방법도 찾는 시간들을 보냈었다. 봉클에서 만난 한 친구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뭔가를 배울 때 깊이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깨닫는 친구인 거 같았다. 그 점이 내가 배워야 할 점이고,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내가 그 동안 맺어 왔던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해 나를 들여다 보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다. 봉사클럽, 아띠클럽이 끝났고, 이젠 친구들과 만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 마음이 컸다.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건 마찬가지인 거 같다. 다만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후회보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거 같다. 아띠클럽, 봉클·번클 청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관계도 깊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에세이 by 사라

그들 기억 속에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난 몇 일간 나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가 경험한 것, 배운 것이 천차만별 인데 그것을 욕심 내서 따라 가려 했던 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리 이기적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든 원인은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 된 거 같다. 양간사님의 조언과, 팀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몇 번이고 생각하고 다짐한 끝에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 들일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팀원들을 가족처럼 편한 사이로 대하고 많이 의지하는 거 같다. 진짜 가족인 듯 마음 놓고 투정부릴 순 없어도, 팀원들이 해주는 위로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팀원들이 좋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건 그 만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만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 같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개인에세이 by 사라

12월 찌아오팀의 막내를 인터뷰 하다!!

찌아오팀 막내 허재복

Q. 안녕하세요~ 12월 한달동안 잘 지내셨나요?

넵! 12월 한달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진행하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이나는 달이고 또한 비자트립과 중간평가를 했는 달이라 좀 더 특별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Q. 중간평가이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음.....11월 보고서에도 말을 했지만 좀 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도 같고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가끔씩은 또 원래상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괜찮아진 상태에요. 지금은 아마 앞으로도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요. 또한 양간사님이 12월에 가는 졸업여행이 너희들 졸업여행이라고 생각안하고 잘 갔다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Q. 4개월동안 계속 매달마다 해오는 다짐은 어떻게 되었나요?

4개월간 수많은 다짐을 했었죠... 지금 기억나는 것은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쓰기, 버스이용하기, 1일1사진 찍기 등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디어!! 버스이용하기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응웬짜이대 마지막 주차일 때 아띠클럽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은 없었고 다른 점이란 돈을 먼저 내고 타는 것이 아닌 자리에 앉으면 버스안내원(?)아저씨가 돈을 받으러 오고 돈을 내고 타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신기했던 점은 버스카드가 찍는 것이 아닌 보여주는 것으로 1달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버스를 이용해본 것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짐들은..... 1월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달은 종강식과 헤어짐이 많은 달인데 어떤 느낌인가요?

음……이번 달이 봉클, 번클 종강식에다가 아띠클럽도 마지막주차를 하는 달이라 헤어짐이 엄청 많은데요... 저번 달에 제가 썼던 에세이를 보면 헤어짐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였습니다. 사실은 한 때에는 헤어짐이 무서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마을에 모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덜 무서워 진 것 같습니다. 아... 또 노래가사를 말하자면 오글거리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라는 노래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서로 한국과 베트남에 온다면 그때는 만날 수도 있고 또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지금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안녕이 영원한 안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무서움이 조금은 사라지게 되었고 좀 더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무서움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지만 그리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추억들을 쌓을 수 있으니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데 슬퍼할 이유는 없잖아요! 또 볼 거고! 또 볼 수 있다는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 말을 너무 반복해서 한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두고 나중에 출국하는 날에 엄청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Q. 프엉간사님의 고향인 박닌으로 3일간 홈스테이를 갔다 온 소감이 어떠한가요?

하노이에 4개월정도 살면서 한번쯤 베트남의 시골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어디가서 자거나 하면 무조건 거주신고를 해야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라온아띠활동계획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살짝 중간평가때 양간사님께 말했어요! 그래서 센터에도 말을 해주시고 부지부장님께서도 물어보셨을 때 한번쯤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이번에 가게 되었어는 것 같아요. 네! 서론이 길었죠? 이번에 박닌으로 갔다 왔는데 가서 저는 뭔가 우리동네(?)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리의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았고 내가 살았던 모화1리와 해남의 외할머니집이 있는 마을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 가는데 저는 좋았어요. 일어나서 밥하고 시장갔다가 점심하고 자고 청소하고 저녁하고 밤에는 놀고 그런 삶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좋았어요. 또 가족 분들과 친척분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고 계속 말도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게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베트남어가 잘 안되어서 그 가족분들과 1대1로 직접적인 소통을 잘 못했다는 점이 너무 너무 너무 아쉬워요.... 제가 베트남어를 좀 더 잘했더라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을텐데요.... 그 점이 제일 아쉽네요...

Q. 1달 뒤 한국으로 가는데 기분이 어떠한가요?

음.....1달 뒤 한국으로 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한국을 가고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마 헤어짐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보고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기분이.

Q. 이번 달을 명대사나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 일진 모르지만 –또 다시 사랑(임창정)"

최근 샤워하다 들은 노래인데 이 가사가 엄청 머리에 남았어요. 간사님들 중 한 분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냥 흘러가는 인연을 계속 만날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라온아띠에서 만난 이 인연을 흘러가는 인연이 아닌 계속 만날 인연으로 하고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지금 남은 이 1개월을 소중하여기게 되고 봉클, 번클, 간사님, 아띠클럽을 더욱 애틋해지고 소중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시 베트남을 와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너무 소중한 인연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노력 하려고요! 계속되는 인연으로 하기위해서요!

아!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선물(멜로망스) ”

이제 1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또 계속 종강식이 있다 보니 모든 순간들이 선물같고 4개월동안 평범했던 일상이 이 12월의 마지막동안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달을 모두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가사로도 이번달을 표현해보고 싶네요.

#이번달은 잡지 인터뷰형식!

CLOSE
D
12월은
이별이야
남은 1월을
잘 부탁해